

권학가



[해제]

동학의 교조 수운(水雲) 최제우(崔濟愚, 1824~1864)가 득도 후 교리를 펴기 위해 지은 동학 포교가사이다. 1860년대 초에 제작된 것으로, 그 정확한 시기는 철종 12년(1861) 또는 철종 13년(1862)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용담유사(龍潭遺詞)의 필사 이본에 이른바 ‘유사팔편(遺詞八篇)’이라 지칭되는 <용담가(龍潭歌)>, <안심가(安心歌)>, <교훈가(敎訓歌)>, <도수사(道修詞)>, <권학가(勸學歌)>, <몽중노소문답가(夢中老少問答歌)>, <도덕가(道德歌)>, <흥비가(興比歌)> 중의 한 작품으로 실려 있다. 길이는 4음보 1행을 기준으로 전체 115행이다. 주요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즉 ① 전라도 은적암에 머무르던 작자가 송구영신(送舊迎新)하며 이 노래를 지음, ② 그 동안 방방곡곡을 지나며 괴이한 인심 풍속을 보고 느낌, ③ 시운이 비록 좋지 않으나堂堂정리(堂堂正理)를 밝혀 본분을 다할 것을 제자들에게 당부하며 자신을 돌아봄, ④ 서양 천주교의 교리를 비판함, ⑤ 성경(誠敬)으로 윤회하는 시운을 따르고 이 글의 가르침을 받을 것을 권면함이 그것이다. 이 <권학가>가 실린 필사 이본 용담유사의 형태는 한지에 각 면 세로 10행, 각 행 24자 내외의 세필로 기록되어 있다. 전체 32장 64면이다. ‘가사 팔편’의 수록 순서는 <교훈가>, <안심가(경신, 1860)>, <용담가(경신)>, <몽중노소문답가(신유, 1861)>, <도수사(신유)>, <권학가(임술, 1862)>, <도덕가(임술)>, <흥비가(계해, 1863)>순으로 되어 있다. 작품 이름 밑에는 간지로 창작 연도가 부기되어 있어 연구에 참고가 된다. 필사자와 필사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다. 기사 방식은 줄글체로 되어 있으며, 4음보 1행을 기준 삼아 행과 행 사이에는 ‘○’의 구분 표지가 삽입되어 있다. 군데군데 글자의 순서가 바뀌거나, 유사한 음으로 베끼는 오류가 눈에 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용담유사 라는 책의 표제와 첫 번째 수록 작품인 <교훈가>의 제목 및 앞부분을 기록하였을 첫 장이 낙장되고 없어 지금 이 필사 이본의 전모를 다 볼 수는 없다. 책의 맨 뒷장 겉면에는 ‘가사 종’이라 적혀 있다.

[원문]

귀귀조조 사퍼니여 定心修道 하여두면
春三月 好時節의 쏘다시 만나볼가

권학가

노류閑談 無事客니 팔도강산 다발버서
절나도 은적암의 환세초로 쇼일흔니
無情흔 니歲月의 놀고보고 먹고보세
浩浩茫茫 너론天地 청녀을 벗슬숨아
일으로신 빚겨서서 적세만물 하여보니
무스흔 니니히포 붓칠소 바니업서
말노하며 글노지여 送舊迎新 하여보세
無情흔 니세월이 엇지이리 무정흔고
어와세상 스롬덜라 人間七十 古來稀난
만고유傳 안일년가 무정흔 니歲月을
력력히 헤어보니 光陰갓튼 이世上의
蜉蝣갓튼 저人生을 七十平生 칭창하야
드물희씩 전탄말가 어와세상 스롬덜라

만고풍상 격글쇼니 노리흔장 지어보셔
 만고풍상 격근일을 산슈만나 쇼창하고
 어린조식 고향싱각 노라지여 쇼창하니
 이글보고 웃지말고 속독상미 하여스라
 億兆蒼生 萬民흔스름 스름마다 이러하며
 허다흔 은문가사 노리마다 니러할가
 귀귀자자 살펴닉여 넉넉히 외와닉셔
 春三月 好時節의 놀고보고 먹고보세
 江山귀경 다던지고 人心風俗 살펴보니
 부조유친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잊지마은 人心風俗 괴이하다
 世上귀경 못흔人生 출싱니후 첨니로다
 싱장흔 이니곳의 人心風俗 한탄히셔
 不顧家產 發程하여 方方谷谷 차조와셔
 미미스스 살펴보니 허다흔 男女스름
 사람마다 낫치설고 人心風俗 험난거동
 미미스스 눈의거쳐 他道他官 안일년가
 니니조분 쇼견으로 胡風胡俗 보라하고
 어진친구 조흔벗즐 一朝이별 험단말가
 山水風景 다던지고 동지셋달 설흔風의
 초초전진 험다가셔 一笑一罷 하여보세
 어와世上 스름덜아 世上風俗 모로거든
 니곳風俗 살펴보쇼 니도역시 시운니라
 무가니라 할길업닉 편답江山 아니하면
 人心風俗 일련줄을 아니보고 엇지알고
 大抵人間 百千萬事 보고난니 험니업닉
 自古及今 忖度하니 堯舜聖世 그씨라도
 一天地下 만흔스름 스름마다 堯舜일세
 윤희갓치 들닌운슈 슈원슈구 안일년가
 아모리 니世上도 賢人君子 잊지만은
 진퇴중의 못진玉石 뉘라셔 분간하며
 安貧樂道 하지만은 뉘라셔 제도할고
 시운을 의논히도 일성일쇠 안일년가
 쇠운니 지극하면 성운니 오지만은
 현속흔 모도君子 同歸一體 하여던가
 어렵쏘다 어렵쏘다 만나기도 어렵쏘다
 方方谷谷니 차져들러 만나기만 만나진딕
 흥중 품은히포 달른할말 바니업고

슈문슈답 흑온후의 당당정니 발켜니여
 일세상 저인물니 도튼중 안일년가
 함지스지 출싱더라 輔國安民 엇지할고
 딘저인간 草木羣生 스싱在天 안일년가
 불시風雨 원망히도 臨死呼天 안일년가
 三皇五帝 聖賢덜도 敬天順天 안일년가
 효박한 니세상의 불고턴명 흑단말가
 징평강졸 만흔스름 하늘임을 우렐너서
 도화중의 싱겨시니 은덕은 고스하고
 근본쥬초 잇질쇼냐 가련흔 세상스름
 각쥬위심 흑단말가 敬天順天 흑여시라
 효박한 니세상의 불망기분 흑여쓰라
 임군의게 공경흑면 忠臣烈士 안일년가
 부모님께 공경흑면 孝子孝婦 안일년가
 슬푸다 세상스름 자세보고 공경흑쇼
 나도쏘흔 出世後의 쥬실부모 안일년가
 정성공경 업셔쓰니 得罪父母 안일년가
 나도쏘흔 忠烈孫니 草野의 자러나서
 군신유의 울나시니 得罪君王 안일년가
 虛送歲月 지닌난니 居然四十 되여더라
 四十平生 니썩닌가 무가니라 할길업닌
 하원갑 庚申年의 전히오난 세상말리
 요망흔 서양적니 中國을 침범히서
 天主堂 늑피세워 괴쇼위 흑난도를
 천흑의 편만흑니 可笑絶창 안일년가
 증전의 들른말을 곰곰니 싱각흑니
 아동방 어린스름 禮義五倫 다바리고
 男女老少 아동쥬졸 성군취당 극성중의
 虛送歲月 흑단말을 보난다시 드러오니
 무단니 하늘님께 쥬쇼간 비난말리
 三十三天 玉京당의 나죽거던 가게흑쇼
 우습다 저스름은 저의부모 죽은후의
 신도업다 일흠흑고 제스쥬초 안지닌며
 五倫의 버셔나서 유언속스 무삼일고
 부모업난 훈령훈칙 저난엇지 유독잇서
 상천흑고 무엇흑고 어린쇼리 마러씨라
 그말저말 다던지고 하늘님을 공경흑면
 아동방 三年괴즐 죽을염녀 닛슬쇼냐

하무한 너의풍속 듯고난니 절창니요
보고난니 기탄일세 너역시 四十平生
히음업시 지닌난이 이제야 니세상의
호련니 심각흔니 시운니 둘러던가
萬古업난 무국大道 니세상의 참견하니
니도역시 시운니라 일일시시 먹난음식
誠敬二字 지켜니여 하늘님을 고경하면
自兒時 잇던신병 勿藥自效 안일년가
家中子弟 우환업서 一年三百 六十日을
닐쥌갓치 지나가니 천위신쥌 안일년가
츄츄츄츄 증험하니 윤희시운 분명하다
어와세상 스롬더라 니넉경계 허난말삼
세세명찰 허온후의 잇지말고 지켜니여
誠之又誠 공경히셔 하늘님만 심각허쇼
妻子불너 효유허고 永世不忘 허여쓰라
아동방 열년과질 인물상히 안일년가
나도또흔 니세상의 편답周遊 허다가셔
어진스롬 만나거던 시운시변 의논허고
익연신세 말허거던 니글쥌고 결의히셔
朋友有信 허여보셔 우밋흔 니넉말삼
잇지말고 심각허쇼 우즈千여 그가온디
必有一得 되거더면 그안이 덕일년가
운슈관계 허난일을古今의 업난고로
추筆추文 지어니여 모몰념치 전히쥌니
니글보고 웃지말고 흠지훈스 허여쓰라

도덕가

天地陰陽 시판後의 百千萬物 화히나셔
至患者 禽獸요 最靈者 스롬니라
傳히오난 세상말이 천의인삼 갓다허고
大定數 周易卦의 난칙지 디신니요
大學의 일은도년 明明其德 허여니아
至於至善 안일년가 中庸의 일은말은
天命之 謂性요이 率性之 謂道요
修道之 敎謂라허야 誠敬二字 발켜두고
我東邦 賢人達士 道德君子 어이롬허나
무지흔 세상스롬 안난빅 텃지라도
경의지심 업셔시니 아난거시 무어시며

天上의上帝님니 옥경되 계시다고
보낸다시 말을하니 음양니치 고사하고
虛無之說 안일년가 한나라 무고사가
我東邦 傳히와서 집집이 위흔거시
명식마다 귀신일세 니런지각 귀경흐쇼
天地역시 귀신니요 귀신역시 음닌줄
니갓치 몰나시니 경전살펴 엇무흐며
도와덕을 몰나시니 賢人君子 엇지알니
금세난 니러흐나 自古聖賢 흐신말삼

[현대역]

구구자자(句句字字) 살펴 내어 정심수도(定心修道) 하여 두면
춘삼월(春三月) 호시절(好時節)에 또 다시 만나볼까.

권학가

노류한담(路柳閑談)1 무사객(無事客)2이 팔도강산 다 밟아서
전라도 은적암(隱寂庵)3에 환세4차(換歲次)로 소일하니
무정한 이 세월에 놀고 보고 먹고 보세.

호호망망(浩浩茫茫) 너른 천지 청려(靑藜)5를 벗을 삼아
일신(一身)으로 비켜서서 적세만물6 하여 보니,

무사한 이내 회포 부칠 곳 바이없어

말로 하며 글로 지어 송구영신(送舊迎新)7 하여 보세.

무정한 이 세월이 어찌 이리 무정한고.

어와, 세상 사람들아. 인간칠십고래희(人間七十古來稀)는8

만고 유전 아닐런가. 무정한 이 세월을

역력히 헤어 보니, 광음(光陰) 같은 이 세상에

부유(蜉蝣)9 같은 저 인생을 칠십 평생 칭찬하여

드물 희자(稀字) 전탄 말가. 어와, 세상 사람들아.

만고풍상(萬古風霜) 겪은 손이 노래 한 장 지어 보세.

만고풍상 겪은 일을 산수 만나 소창(消暢)10하고

어린 자식 고향 생각 노래 지어 소창하니,

이 글 보고 웃지 말고 숙독상미(熟讀嘗味)11 하여서라.

억조창생(億兆蒼生) 많은 사람 사람마다 이러하며,

허다한 언문가사12 노래마다 이러할까.

구구자자(句句字字) 살펴 내어 역력히 외워 내서

춘삼월(春三月) 호시절(好時節)에 놀고 보고 먹고 보세.

강산 구경 다 던지고 인심 풍속 살펴보니,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봉우유신 있지마는 인심 풍속 괴이하다.

세상 구경 못한 인생 출생 이후 첨이로다.

생장(生長)한13 이내 곳의 인심 풍속 한탄해서,

불고가산(不顧家產)14 발정(發程)하여 방방곡곡(方方谷谷)15 찾아와서

매매사사(每每事事) 살펴보니, 허다한 남녀 사람

사람마다 낮이 설고 인심 풍속 하는 거동

매매사사 눈에 걸려 타도타관(他道他官)16 아닐런가.

이내 좁은 소견으로 호풍호속(胡風胡俗)17 보려 하고

어진 친구 좋은 벗을 일조(一朝) 이별 하단 말가.

산수풍경 다 던지고 동지섣달 설한풍에

촌촌전진(村村轉進)18 하다 가서 일소일파(一笑一罷) 하여 보세.
 어와, 세상 사람들아. 세상 풍속 모르거든
 내 곳 풍속 살펴보소. 이도 역시 시운(時運)이라
 무가내(無可奈)19라 할 길 없네. 편답강산(遍踏江山) 아니하면
 인심 풍속 이런 줄을 아니 보고 어찌 알고.
 대저 인간 백천만사(百千萬事) 보고나니 한이 없네.
 자고금금(自古及今) 촌탁(忖度)하니20 요순성세(堯舜聖世) 그때라도
 일천지하(一天地下) 많은 사람 사람마다 요순(堯舜)일세.
 윤회같이 돌린 운수 수원수구(誰怨誰咎)21 아닐런가.
 아무리 이 세상도 현인군자(賢人君子) 있지마는
 진토(塵土) 중에 묻힌 옥석(玉石) 뉘라서 분간하며
 안빈낙도(安貧樂道) 하지마는 뉘라서 계도할꼬.
 시운을 의논해도 일성일쇠(一盛一衰)22 아닐런가.
 쇠운이 지극하면 성운이 오지마는
 현숙한 모든 군자 동귀일체(同歸一體)23 하였던가.
 어렵도다. 어렵도다. 만나기도 어렵도다.
 방방곡곡(方方谷谷)24 찾아들어 만나기만 만날진대,
 흥중 품은 회포 다른 할 말 바이없고
 수문수답(隨問隨答)25 하온 후에 당당정리(堂堂正理)26 밝혀내어,
 일 세상 저 인물이 도탄 중 아닐런가.
 함지사지(陷之死地)27 출생들아 보국안민(輔國安民) 어찌할꼬.
 대저 인간 초목군생(草木羣生) 사생재천(死生在天)28 아닐런가.
 불시풍우(不時風雨)29 원망해도 임사호천(臨死呼天)30 아닐런가.
 삼황오제(三皇五帝)31 성현(聖賢)들도 경천순천(敬天順天)32 아닐런가.
 효박한 이 세상의 불고천명(不顧天命)33 하단 말가.
 장평갱졸(長平坑卒)34 많은 사람 한울님을 우러러서
 조화 중에 생겼으니, 은덕은 고사하고
 근본조차 잊을쏘냐. 가련한 세상 사람
 각자위심(各自爲心)35하단 말가. 경천순천(敬天順天) 하여서라.
 효박한 이 세상에 불망기본(不忘其本)36 하여서라.
 임금에게 공경하면 충신열사(忠臣烈士) 아닐런가.
 부모님께 공경하면 효자효부(孝子孝婦) 아닐런가.
 슬프다, 세상 사람. 자세 보고 공경하소.
 나도 또한 출세 후에 조실부모(早失父母)37 아닐런가.
 정성 공경 없었으니 득죄부모(得罪父母)38 아닐런가.
 나도 또한 충렬손(忠烈孫)39이 초야에 자라나서
 군신유의 몰랐으니 득죄군왕(得罪君王)40 아닐런가.
 허송세월(虛送歲月) 지내나니 거연(居然) 사십 되었더라.

사십 평생 이뿐인가. 무가내라 할 길 없네.
 하원갑(下元甲)41 경신년42에 전해 오는 세상 말이,
 요망한 서양 적이 중국을 침범해서
 천주당(天主堂) 높이 세워 그 소위 하는 도를
 천하에 편만(遍滿)하니, 가소절장(可笑絕腸)43 아닐런가.
 증전(曾前)에44 들은 말을 곰곰이 생각하니,
 아동방(我東方) 어린45 사람 예의오륜(禮義五倫) 다 버리고
 남녀노소 아동주졸(兒童走卒)46 성군취당(成群聚黨)47 극성 중에
 허송세월(虛送歲月) 한단 말을 보는 듯이 들어오니,
 무단이 한울님께 주소간(晝宵間) 비는 말이
 삼십삼천(三十三天) 옥경대(玉京臺)에48 나 죽거든 가게 하소.
 우습다. 저 사람은 저의 부모 죽은 후에
 신도 없다 이름하고 제사조차 안 지내며,
 오류에 벗어나서 유언속사(唯言速死)49 무슨 일고.
 부모 없는 혼령혼백 저는 어찌 유독 있어
 상천(上天)하고 무엇하고 어린50 소리 말아서라.
 그 말 저 말 다 던지고 한울님을 공경하면
 아동방(我東方) 삼년 괴질 죽을 염려 있을쏘냐.
 허무한 너의 풍속 듣고 나니 절장(絕腸)51이요,
 보고 나니 개탄일세. 내 역시 사십 평생
 하염없이 지내나니. 이제야 이 세상에
 홀연히 생각하니 시운이 돌렸던가.
 만고 없는 무극대도(無極大道)52 이 세상에 참견하니
 이도 역시 시운이라. 일일시시(日日時時)53 먹는 음식
 성경이자(誠敬二字) 지켜내어 한울님을 공경하면
 자아시(自兒時) 있던 신병 물약자효(勿藥自效)54 아닐런가.
 가중자제(家中子弟) 우환 없어 일 년 삼백 육십 일을
 일조(一朝)같이 지나가니 천우신조(天佑神助)55 아닐런가.
 차차차차 증험(證驗)56하니 윤회시운(輪迴時運) 분명하다.
 어와, 세상 사람들아. 이내 경계하는 말씀
 세세명찰(細細明察)57하온 후에 잊지 말고 지켜내어,
 성지우성(誠之又誠)58 공경해서 한울님만 생각 하소.
 처자(妻子) 불러 효유하고 영세불망(永世不忘)59 하였어라.
 아동방(我東方) 연년괴질(年年怪疾)60 인물상해(人物傷害) 아닐런가.
 나도 또한 이 세상에 편답주유(遍踏周遊)61 하다 가서,
 어진 사람 만나거든 시운시변(時運時變)62 의논하고,
 백년 신세 말하거든 이 글 주고 결의(結義)해서
 봉우유신 하여 보세. 우매한 이내 말씀

잊지 말고 생각하소. 우자천려(愚者千慮)⁶³ 그 가운데
필유일득(必有一得) 되게 되면 그 아니 덕일런가.
운수 관계 하는 일은 고금(古今)에 없는 고로
졸필졸문(卒筆卒文) 지어 내어 모몰염치(冒沒廉恥)⁶⁴ 전해 주니,
이 글 보고 웃지 말고 흠재훈사(欵哉訓辭)⁶⁵ 하여서라.

도덕가

천지음양(天地陰陽) 시판후(始判後)에¹ 백천만물(百千萬物) 화해 나서
지우자(至愚者) 금수(禽獸)요 최령자(最靈者) 사람이라.²
전해 오는 세상 말이 천의인심(天意人心)³ 같다 하고
대정수(大定數)⁴ 주역괘(周易卦)⁵의 난측자(難測者) 대신⁶이요,
대학(大學)에 이른 도는 명명기덕(明明其德) 하여 내어
지어지선(至於至善) 아닐런가.⁷ 중용(中庸)에 이른 말은
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이요, 솔성지위도(率性之謂道)요,
수도지위교(修道之謂教)라 하여⁸ 성경이자(誠敬二字) 밝혀 두고,
아동방(我東邦) 현인달사(賢人達士) 도덕군자(道德君子) 이름 하나,
무지한 세상 사람 아는 바 천지라도
경외지심(敬畏之心)⁹ 없었으니 아는 것이 무엇이며,
천상(天上)의 상제(上帝)님이 옥경대(玉京臺)¹⁰ 계신다고
보는 듯이 말을 하니, 음양(陰陽) 이치 고사하고
허무지설(虛無之說) 아닐런가. 한(漢)나라 무고사(巫瞽事)¹¹가
아동방(我東邦) 전해 와서 집집이 위한 것이
명색마다 귀신일세. 이런 지각(知覺) 구경 하소.
천지 역시 귀신이요 귀신 역시 음(陰)인 줄
이같이 몰랐으니 경전 살펴 무엇하며,
도(道)와 덕(德)을 몰랐으니 현인군자(賢人君子) 어찌 알리.
금세는 이러하나 자고(自古) 성현(聖賢) 하신 말씀,

[각주]

- 1) 노류한담(路柳閑談) : 길가 버드나무 밑에서 나누는 한가한 이야기.
- 2) 무사객(無事客) : 일 없는 나그네. 곧 작자 자신.
- 3) 은적암(隱寂庵) : 전라북도 남원의 교룡산성 안에 있는 작은 암자. 동학의 대신사 최제우가 득도 후 포덕 2년(1861년) 설달부터 이듬해 3월까지 머무르며 수편의 경전을 집필한 곳으로, 천도교의 성지이다.
- 4) 환세 : 해가 바뀜. 새해가 됨.
- 5) 청려(靑藜) : 청려장(靑藜杖). 명아쫓대로 만든 지팡이.
- 6) 적세만물 : 다른 이본에는 ‘격치만물(格致萬物)’로 되어 있음.
- 7) 송구영신(送舊迎新) :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음.
- 8) 인간칠십고래희(人間七十古來稀)는 : 사람이 칠십까지 사는 일이 예로부터 드물다는 것은.
- 9) 부유(蜉蝣) : 하루살이.
- 10) 소창(消暢) : 심심하거나 갑갑한 마음을 풀어 후련하게 함.
- 11) 숙독상미(熟讀嘗味) : 뜻을 생각하며 자세히 읽고 깊이 음미함.
- 12) 언문가사 : 우리말로 지은 가사 작품.
- 13) 생장(生長)한 : 태어나고 자란.
- 14) 불고가산(不顧家產) : 집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음.
- 15) 방방곡곡(方方谷谷) : 방방곡곡(坊坊曲曲).
- 16) 타도타관(他道他官) : 다른 도와 다른 고을.
- 17) 호풍호속(胡風胡俗) : 오랑캐의 좋지 않은 풍속.
- 18) 촌촌전진(村村轉進) : 마을에서 마을로 옮겨 다님.
- 19) 무가내(無可奈) : 어찌할 수가 없음.
- 20) 촌탁(村度)하니 : 미루어 헤아리니.
- 21) 수원수구(誰怨誰咎) : 남을 원망하거나 책망할 것이 없음.
- 22) 일성일쇠(一盛一衰) : 한번 성했다가 한번 쇠함.
- 23) 동귀일체(同歸一體) : 함께 한 몸으로 돌아감. 천도교에서 인간의 정신적 결합을 뜻하는 말이다.
- 24) 방방곡곡(方方谷谷) : 방방곡곡(坊坊曲曲).
- 25) 수문수답(隨問隨答) : 묻는 대로 거침없이 대답함.
- 26) 당당정리(堂堂正理) : 당당하게 바른 이치.
- 27) 함지사지(陷之死地) : 아주 위험한 처지에 빠짐.
- 28) 사생재천(死生在天) :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음.
- 29) 불시풍우(不時風雨) : 때 아니게 부는 바람과 오는 비.
- 30) 임사호천(臨死呼天) : 죽음에 임하여 하늘을 부름.
- 31) 삼황오제(三皇五帝) : 중국 고대 전설에 나오는 삼황과 오제를 아울러 이르는 말. 사료에 따라 삼황 오제의 이름은 조금씩 다르다.
- 32) 경천순천(敬天順天) : 하늘을 공경하고 따름.
- 33) 불고천명(不顧天命) : 하늘의 명을 돌아보지 않음.
- 34) 장평갱졸(長平坑卒) : 중국 전국시대 진(秦)과 조(趙)의 전쟁 시 장평 땅에 묻혀 죽은 조의 40만 군

줄. 일시에 많은 사람이 참혹하게 죽는 것을 말한다.

35) 각자위심(各自爲心) : 각기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마음.

36) 불망기본(不忘其本) : 그 근본을 잊지 않음.

37) 조실부모(早失父母) : 어려서 부모를 여읜.

38) 득죄부모(得罪父母) : 부모에게 죄를 지음.

39) 충렬손(忠烈孫) : 충신 열사의 자손.

40) 득죄군왕(得罪君王) : 군왕에게 죄를 지음.

41) 하원갑(下元甲) : 운이 다하여 망하여 가는 시대.

42) 경신년 : 철종 11년(1860).

43) 가소절장(可笑絕腸) : 우스워 창자가 끊어질 만함.

44) 증전(曾前)에 : 지나간 때에.

45) 어린 : 어리석은.

46) 아동주졸(兒童走卒) : 철없는 아이들과 어리석은 사람들.

47) 성군취당(成群聚黨) : 모여서 무리를 이룸.

48) 삼십삼천(三十三天) 옥경대(玉京臺)에 : 하늘나라에. 삼십삼천은 불교에서 말하는 서른세 가지 하늘이고, 옥경대는 도교의 옥황상제가 산다는 천상의 궁전이다.

49) 유언속사(唯言速死) : 오직 빨리 죽겠다고 말함.

50) 어린 : 어리석은.

51) 절장(絕腸) : 가소절장(可笑絕腸). 우스워 창자가 끊어질 만함.

52) 무극대도(無極大道) : 우주 본체인 무극의 영적인 능력.

53) 일일시시(日日時時) : 날이면 날마다, 때가 되면 때마다.

54) 물약자효(勿藥自效) : 약을 쓰지 않고 저절로 효험을 봄.

55) 천우신조(天佑神助) : 하늘과 신령의 도움.

56) 증험(證驗) : 실지로 사실을 경험함.

57) 세세명찰(細細明察) : 매우 세밀하고 밝게 살핌.

58) 성지우성(誠之又誠) : 정성에 정성을 들임.

59) 영세불망(永世不忘) : 영원히 잊지 않음.

60) 연년괴질(年年怪疾) : 해마다 도는 괴상한 병.

61) 편답주유(遍踏周遊) : 널리 돌아다니며 놀.

62) 시운시변(時運時變) : 때의 운수와 변고.

1) 천지음양(天地陰陽) 시판후(始判後)에 : 하늘과 땅, 음과 양이 처음 나누어진 다음에.

2) 지우자(至患者) 금수(禽獸)요 최령자(最靈者) 사람이라. : 지극히 어리석은 자는 짐승이요, 가장 신령한 자는 사람이라.

3) 천의인심(天意人心) : 하늘의 뜻과 사람의 마음.

4) 대정수(大定數) : 사람의 사주에서 뽑아내어 운명이나 길흉 등을 살피는 수.

5) 주역괘(周易卦) : 음양 변화의 원리 등을 해명하는 주역의 골자를 이루는 괘.

6) 대신 : 다른 이본에는 '귀신'으로 되어 있다.

7) 대학(大學)에 이른 도는 명명기덕(明明其德) 하여 내어 지어지선(至於至善) 아닐런가. : 「대학(大

學)」의 삼강령(三綱領)인 “대학의 도는 명덕을 밝히는 데 있고, 백성을 새롭게 하는 데 있고, 지선에 그치는 데 있다(大學之道 在明明德 在新民 在止於至善)”는 구절을 끌어 쓴 내용이다.

63) 우자천려(愚者千慮) : 어리석은 사람이 무려 천 번을 생각함.

64) 모몰염치(冒沒廉恥) : 염치없음을 무릅쓰.

65) 흠재훈사(欽哉訓辭) : 가르쳐 타이르는 말을 공경하여 받들.

8) 중용(中庸)에 이른 말은 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이요, 솔성지위도(率性之謂道)요, 수도지위교 :

「중용(中庸)」에 나오는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 하고,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 하고, 도를 닦는 것을 교라고 한다(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라는 구절을 끌어 쓴 내용이다.

9) 경외지심(敬畏之心) :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10) 옥경대(玉京臺) : 도교의 옥황상제가 산다는 천상의 궁전.

11) 무고사(巫覡事) : 무당과 판수들이 하는 일.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